

‘지루함의 미학-모노크롬’전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이우환 작 '무제'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은 오는 7월20일까지 일본 모노하(物派)와 한국 모노크롬(monochrome) 회화의 관계를 되짚어보는 '지루함의 미학-모노크롬'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시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박인식, 문승근, 박서보, 오이람, 이우환, 정상화, 최명현, 하종현, 허황씨의 작품과 서정봉, 유승우씨의 신작 등 50여 점을 전시한다. 박인식, 문승근, 이우환씨 등은 일본 모노하 경향의 대표 작가이며 박서보, 정상화, 최명현씨 등은 모노크롬 회화를 선보이는 작가들이다.

이번 전시회는 이들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하면서 일본 모노하와 한국 모노크롬 회화의 중요한 특성이 행위의 반복, 단색화 경향 등 상호 연관성을 비교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062-222-357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서양화가 정상섭 서울서 개인전



정상섭 작 '섬'

서양화가 정상섭씨가 남도의 화사한 꽃향기를 화폭에 담아 서울에 풀어놓았다. 정씨는 지난 봄 흐드러지게 남녘을 물들였던 매화를 비롯해 해바라기, 목련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을 모아 오는 30일까지 서울 삼quel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정씨는 사실주의 화풍을 토대로 사물을 단순하게 표현한 대신, 강렬한 원색과 파스텔톤으로 화면에 조형성과 리듬감을 살린 작품들을 선보인다. 빨강, 노랑, 파랑 등 원색의 대비와 공간을 압축시켜, 바람에 꽃잎이 흔들리는 사물의 작은 움직임까지 세밀하게 표현했다.

정씨의 화풍을 비교적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작품인 '사막의 추억'은 꽃, 나무, 물, 산, 하늘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 '꽃동산' 등의 작품은 색에 대한 작가의 탐구를 엿보게 해준다.

조선대학교 회화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대구미술대전 심사위원, 광주시 미술대전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일곡문화의 집 '맘씨어터 - 꽃바람' 주부들

활력 충전·자아 찾기 '화려한 일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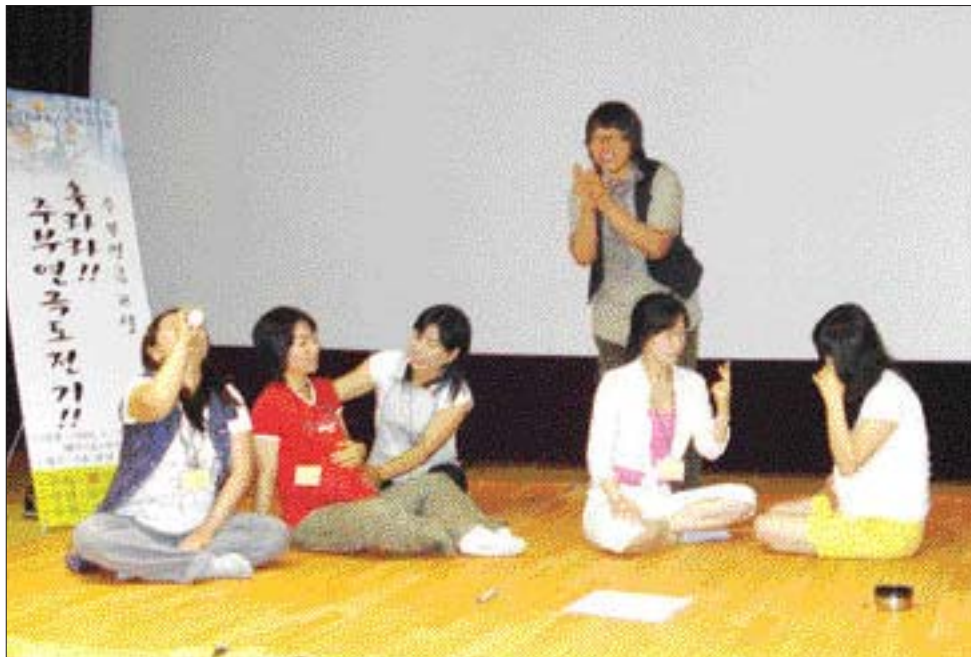
"아이구, 아가 이번엔 진짜 아들이면 좋겠다." "어머니, 병원에 다녀왔는데 또 딸인 것 같아요."

"걱정할 필요 없다. 낳다 보면 언젠가 아들이 걸러지잖아."

지난 20일 광주 일곡문화의집(이하 문화의 집) 강당 '홀랄라! 아줌마 연극 도전기' 수업 현장. 딸만 여섯을 둔 며느리와 시어머니 역할을 맡은 초보 배우들의 연기가 한창이다. 연기는 난생 처음이지만 자신들이 직접 스토리를 짜고 대사를 만든 터라 영 어색하지않았다.

문화의 집이 진행하는 연극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주부는 모두 15명. 3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층도 다양하다.

김란(37·광주시 북구 오치동)씨 등 3명은 지난해까지 문화의 집이 운영했던 주부극단 '꽃잎'에서 활동했던 경력이 있지만 대부분은 연극이라는 걸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이다. 생활의 활력소를 얻기 위해, 늘 똑같은 일상에서의 탈출을 위해, 또 다른 자아의 발견을 위해... 주



지난 20일 광주 일곡문화의 집 강당에서 주부극단 '맘씨어터 꽃바람' 단원들이 '홀랄라! 아줌마 연극 도전기' 수업을 받고 있다.

'홀랄라! 아줌마 연극 도전기' 수업 15명

"스토리 짜고 연기 연습...너무 행복해요"

부들은 다양한 이유로 배우가 됐다.

이번 연극교실에 참가한 이들은 '맘씨어터 - 꽃바람'이라는 근사한 이름도 만들었다. 교육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임을 운영, 멋진 주부극단으로 열심히 활동할 계획이다.

"제가 언제 연극이라는 걸 해 봤었어. 저에게는 진짜 새로운 도전이고 모험이죠. 제 안에 숨겨져 또 다른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애초 문화의 집이 운영하는 '구연동화' 강좌를 들으러 왔다 '배우'(?)의 길로 들어선 김희화(35·광주시 북구 삼각동)씨는 "매주 연습하러 오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아이에게 엄마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모

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학교에서도 학예회를 하는데 아이에게 무작정 너도 참여해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연극을 하는 걸 보면 아이도 흥미를 느끼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자신 역시 연극을 하면서도 생활의 활력소를 얻게 됐구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을 둔 조수경(36·광주시 북구 일곡동)씨처럼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싶어서"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이날 수업 시간에는 올 12월 공연할 작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당초에는 외국 작품 '헤이즐'이 후보작이었지만 우리나라 상황과 어울

리지 않는 부분이 많아 '자신들의 이야기'로 작품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2개 조로 나눠 대화를 나누던 주부들은 딸만 여섯을 낳은 여성, 불임 여성, 재혼 가정에서 힘겨게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 등 다양한 캐릭터와 대사를 '뚝딱' 만들어내고, 곧바로 연기까지 하는 만만찮은 실력을 보여줬다.

이날 임시로 정한 작품 제목은 유영작품 '사랑에 관한 다섯 가지 소묘'에서 따온 '임신에 관한 다섯 가지 소묘'로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을 거쳐 완성된 대본을 함께 만들고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육을 받고 있는 추말숙(42)씨는 "노년층,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 봤지만 가장 많이 변화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주부층"이라며 "아이들과 늘 함께 하는 엄마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는 게 생활 속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백예 앙겔로스 플루트 앙상블 창단 연주회

백예 앙겔로스 플루트 앙상블(단장 남미경) 창단 연주회가 23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포럼 소극장에서 열린다.

앙겔로스 플루트 앙상블은 악장 정지현씨를 비롯, 강성에 조현선, 김수희·오하정·양정아씨 등 모두 12명의 플루티스트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연주회에서 비발디의 '사계',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엘가의 '사랑의 인사', 레스피기의 '이탈리아' 등 주옥같은 클래식곡들을 편곡해 들려준다. 또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삽입곡과 한국민요 모음곡도 선사한다.

지휘는 김병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전임지휘자)씨가 맡았으며 바리톤 김우현, 플루트의김수연(자산초 1년)양이 협연한다. 문의 010-3705-735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지침' 마련

광주시는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해 '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지침'을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시에 이어 두번째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평생을 한 분야에서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데 대한 예우 차원에서 마련됐다.

예우 지침에 따르면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10일 이상 임원했을 경우 임원 위로금 50만원, 사망했을 경우 장례 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현재 시행중인 전승지원금(보유자 월 80만원, 보유단체 월 30만원, 전수 장학생 월 10만원)과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a cinema festival. It features a banner at the top with the text 'Happy Time 영화안내' and several movie posters. Below the banner are six columns, each representing a different cinema location: 메가박스, 엔터시네마, 콜롬버스시네마, 써너스전대, 하미시네마, and 제일시네마. Each column lists the cinema's address, phone number, and a schedule of movies to be shown, including titles like '강철중(공공의적)', '인크레더블 헬크', '해프닝', '툰스데이', '섹스 앤 더 시티', and '인크레더블 헬크'. There are also promotional offer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each cinema.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

미국 뉴욕의 중심지인 맨하튼 5번가는 '명품의 거리'로 불린다. 루이비통, 티파니, 샤넬 등 명품매장들이 즐비한 이곳은 일년 내내 쇼핑객들로 넘쳐난다.

하지만, 이 '쇼핑 1번지'가 일 년에 한번 예술의 거리로 옷을 갈아입는 날이 있다. 매년 6월 둘째 주 화요일 열리는 '뮤지엄 마일 페스티벌(museum mile festival)'이다. 뮤지엄 마일은 내로라하는 미술관들이 밀집해 있는 5번가의 82가에서부터 104가까지 아우르는 말로, 지난 1978년 이 페스티벌의 시작과 함께 명명됐다.

이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무료 미술관 축제라는 점이다. 내셔널 디자인 아카데미, 유대인 미술관, 메트로 폴리탄, 구겐하임 등 9개의 미술관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약 3시간 동안 관람객들에게 '안방'을 내준다. 축제가 열리는 동안 이곳의 차량 운행은 전면 통제된다. 그렇다고 무료 입장이 뮤지엄 마일의 전부는 아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미술관 밖에서 펼쳐지는 난장(亂場)'이다.

올해로 30회째를 맞은 '2008 뮤지엄 마일 페스티벌'은 예년과 달리 6월 첫째 주 화요일(3일) 개막됐다. 104가에 위치한 남미미술관은 경쾌한 라틴음악과 댄스가 어우러지는 야외공연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이에 뒤질세라 구겐하임과 유대인미술관은 록밴드 연주와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맛볼'을 놓고, 내셔널 디자인 아카데미는 감미로운 재즈선율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뛰어넘어오던 이날 축제의 주인공은 어린이들이다. 가족과 함께 온 꼬마관객들은 검은색 아스팔트 위에 형형색색의 분필로 상상의 나라를 펼쳤다. 비록 3시간의 짧은 축제이지만 시민들은 소중한 추억들을 한바탕 안고 뮤지엄 마일을 떠났다.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시작된 축제는 매년 5만여 명이 찾는, 5번가의 또 하나의 명품이 됐다.

뉴욕 뮤지엄 마일 페스티벌은 새삼 광주 예술의 거리를 되돌아보게 한다. 예술의 거리는 인근에 위치한 광주 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을 필두로 크고 작은 갤러리가 들어서 있는 광주의 '문화 1번지'이다. 그러나 도심 공동화와 불거리 부재로 갈수록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보다 못한 광주 동구청은 지난 2006년 사위어 가는 예술의 거리를 되살리기 위해 루미나리에를 설치했다. '차 없는 거리'와 상설프로그램으로 '색깔 있는 거리'를 꾸미자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단박에'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 화려한 불빛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는 바람에 시민들은 물론 상인들로부터 거리의 품격을 해치는 흉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뮤지엄 마일 페스티벌이 뉴욕의 상징이 된 건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예술이벤트 덕분이다. 제 아무리 화려한 불거리라도 관객들의 예술적 감성을 적셔주는 콘텐츠가 뒤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2년이 지나도록 예술의 거리와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루미나리에가 주는 교훈이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